트럼프 2.0 시대의 개막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 모색

트럼프 2.0 시대 개막, 글로벌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도전

2025년 1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1년까지 한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트럼프가 4년여 만에 다시금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한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기 이전부터 전 세계는 그가 몰고 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자국에 유리한 해법을 찾기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하기 전까지 모두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취임 이후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준 행보는 가히 파격적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넘어 Glory Again을 외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시금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서 필요하다면 상호 교환과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기존의 경제학적 질서를 외면하면서까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의 반대편에는 중국이 서 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기업분석3팀장
나 승 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첫 번째 대목이 등장한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 또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해리스 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작금의 형국이 달라졌을까? 사실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1기를 마치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를 돌이켜보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바 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의 기대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표현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따라서 만약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계승을 주장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G2의 갈등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자극적인 행보는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WTO 가입부터 아시아 재균형까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재가입을 지원하는 등 중국의 세계무대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오랜 국공내전과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인해 지쳐버린 중국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사실상 부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택은 미국에 잠재적 위협으로 성장했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버락 오바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Asia Rebalancing)을 펴기에 이른다.

실제로 중국의 영향력은 WTO에 가입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했으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안보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 형성에 좀 더 집중했고,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의 영향력이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러시아(구 소비에트연합)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0년대 소비에트연합이 해체되면서 생긴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었고, 2014년에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발표하며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단순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노리는 행위들이 반복되었고, 특히 중동 원유 시장에서의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는 페트로위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가 불편했고,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실제로 공화당 행정부 시절보다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은 압도적인 숫자의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중국 주변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트럼프 1기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만큼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2기와 글로벌 블록화, 동맹 재편과 한국의 입지 변화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공식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미 트럼프 1기 시절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면서 나타났던 세수 부족을 관세로 충당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단순히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을 넘어 불법 이민자 및 마약 문제, 첨단 기술이 포함된 제조업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더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두 번째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자국 우선주의를 뛰어넘는 우리편 우선주의와 탈세계화 및 블록화 현상이다. 불법 이민자 및 마약 문제, 첨단 기술을 포함한 공급망 재편은 미국이 독자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은 어디일까.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조선, 방산, 반도체 등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예상되지만,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확실한 우방국이냐는 질문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대한민국을 머니머신이라 지칭하던 트럼프의 입에서 아예 언급이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혈맹 동맹 관계로 형성된 파이브 아이즈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일본(Five Eyes and Japan)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상과 동북아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역할 변화

지난해 일본의 신임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인식이 꽤나 긍정적이다. 야스꾸니 신사에 공물 헌납도 하지 않고 상당히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과거 방위대신 시절 일본 중심의 아시아판 NATO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도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자주 했던 인물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갈등, 예멘 후티 반군 등 신경 써야 할 전장(戰場)이 넓어진 상황에서 일본의 부상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은 전통 제조업의 강국이자 군사 강국이다.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세계를 블록화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 권역에서의 패권 경쟁에 일본이 나서준다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 자리에서 일본이 국방비를 2배 증액하겠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 카드를 꺼낸 것이 절대 아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치 1950년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이 오늘날 다시 그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1950년 1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권역의 방위선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대만은 제외하고 일본과 필리핀은 포함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6.25 전쟁 발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 때의 형국이 다시금 재편되는 느낌이다.

1950년에는 전쟁이 발발했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더욱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부상(浮上)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권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THAAD 배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한령의 해제를 의미한다.

2027년 중국의 분기점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중국은 매우 큰 분기점을 맞이한다. 건군(建軍)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2027년이다. 2028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임기가 마무리된다. 당 헌장을 수정하며 3연임에 나섰던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군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2027년까지 큰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중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미국과의 GDP 격차를 맹렬하게 좁혀가던 중국이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며 미국과의 GDP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바 있다. 이를 다시 좁히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언급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부의 유출은 막되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내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및 동북아시아 권역에서의 패권 경쟁을 위한 일본의 부상을 고려한다면 중국도 갈등을 만들며 국방비 증액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즉,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대업의 끝은 영토 확장이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트럼프 2기, 한국의 선택과 새로운 기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9년 마무리된다. 하지만 제2의 트럼프가 등장할 가능성도, 트럼프가 다시금 재선과 연임의 욕심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너무 시기상조다. 당장 국가 지도부 공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샌드위치 국면을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할 때이다. 분명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를 무조건 외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체리피킹 하기 위해서든, 중국의 동맹국 확보 차원에서든 우리나라를 향한 구애는 계속될 것이다. 명철보신(明哲保身)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관세라는 수단을 통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공격적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과 서비스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라 K-콘텐츠를 비롯한 S/W 인력과 기술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